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생명안전 시민넷 (담당 : 박순철 사무처장 010-4328-7722)
제 목 [보도협조요청] 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날 짜 2022. 11. 02. (총 2 쪽)

보도협조요청

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
일시 장소 : 11. 03. (목)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황망하게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보아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1. 취지와 목적

- 국가의 시민안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막아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려 156명의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참사 발생 이후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 브리핑과 112 신고 녹취록 공개를 통해, 경찰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초동 대응에 실패하고 사실상 신고를 방치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 예방도 대응도 없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으로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에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의 문제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재난보도준칙을 지키지 않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지원 과정에 제언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11/3(목)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행사제목 : 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 긴급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2. 11. 03. 목 10:3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슴기살균제참사 범단체.victims,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틸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재난·산재 피해자 단체)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종교계) 4.16연대, 60+기후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명안전 시민넷,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시민사회·노동단체) (가나다순)
 - 프로그램
 - 사회 :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 주요 발언
 - 이태원 참사의 성격과 진단, 문제점
 - 이태원 참사 정부의 대응과 책임에 관한 법적 검토
 - 경찰청 작성 정보문건 등 정보경찰의 문제점
 - 이태원 참사 언론 보도의 문제점
 -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피해자 조력에 대한 권리 보장
 - 재난참사, 산재 피해자와 가족들의 연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3. 내일 기자회견은 4.16연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416act.net>) 라이브로 생중계되며 현장 취재도 가능합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